

# 올해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 박차

##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년 전북직업교육 계획 발표 글로벌특성화고 선정 10곳 환경 개선·기자재 지원 등 혁신·수업·역량·취업 등 4개 분야 39개 과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글로벌특성화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북직업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미래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혁신, 수업, 역량, 취업 등 4개 분야 3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북글로벌특성화고에 선정된 10개교에 대한 환경개선 및 기자재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하이텍고, 이리공고, 글로벌혁신고, 완산여고, 원광보건고, 전북베이커리고, 전북유니텍고, 전북펫고, 전주공고, 한국기술사관고가 대상이다.

특히 지역전략산업맞춤형에 선정된 이리공업고와 신산업·신기술 융합형에 선정된 전북하이텍고는 전면개편이 예정된 만큼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재교육, 기숙사 및 기업현장미러링실

습실 구축, 기자재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어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기업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고등학교로 올해 도내에서는 전북하이텍고, 한국치즈과학고, 이리공업고 등 3개교에서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도 중점 추진된다. 올해는 지역맞춤형 기술인재 및 교사 디지털 수업 역량강화를 목표로 12개교를 선도학교로, 16개교는 일반학교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들 학교에는 디지털 융합·활용역량을 가진 미래기술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총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끝으로 직업교육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도 강화된다. 전문교과교원은 전문분야 30시간 이상 연수를 실시하고, 전공 심화연수, 소인수 전공교과연수, 산업체 현장 맞춤형 연수를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 전북직업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전북직업교육 설명회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 이와 더불어 부전공 자격연수,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연수, 미래직업교육 연수 등을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 △전북직업교육 혁신지구 △직업계교 글로벌 인턴십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을 2024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테마형 특성화고를 추진중에 있다”면서 “미래산업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춘 전문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15일 도내 31개 직업계고 관리자 및 주요부장, 전문교과 교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계고 교원전북직업교육 설명회 및 교원 현장실습 연수를 열고, 2024년 전북직업교육의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하이텍고등학교가 19일 비전세미콘과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스마트팩토리 분야 인재 육성 나섰다

### 전북하이텍고,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위해 광전자·아데카코리아·비전세미콘 등과 협약

전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 한천수)가 전북글로벌특성화고 추진을 통해 지능형 공장 자동화(스마트팩토리)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하이텍고는 지난 16일 광전자, 19일 아데카코리아, 비전세미콘 등 3개 업체와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앞서 이뤄진 완주군-완주산업단지(현대자동차 등)-교육청-

학교의 협업체 구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북하이텍고등학교는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의 3개 학과는 폐교하고, 지능형 공장 자동화(스마트팩토리) 분야 3개 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 학교명을 변경하고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천수 교장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능형 공장 자동화(스마트팩토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17일 자유관 201호에서 성인 학습자 36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제1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고등 평생교육 의미 확산시키는 계기’

###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제1회 학위수여식 개최... 36명 ‘첫 결실’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난 17일 자유관 201호에서 성인 학습자 36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제1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융합대학은 4년 전 LIFE 사업을 시작해 현재 LIFE 2.0(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통해 성인 학습자 36명에 대해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성적 우수

및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박수열(창업경영금융학과), 김기환(창업경영금융학과), 양은례(창업경영금융학과), 김효열(농생명ICT학과), 유제영(기술경영공학과), 박정연(문화융합콘텐츠학과) 학생에게 학장상 및 공로패를 줬다.

한동승 학장은 “고등평생교육이라는 새로운 장에서 4년간 성인 학습자들과 교수들의 노력이 첫 결실을 보는 뜻깊은 학위수여식이었다”며 “4년간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면서

학업을 완수한 졸업생 여러분께 축하를 전하며, 전주대가 고등 평생교육의 새로운 체계를 굳건히 하고 평생교육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융합대학은 학위수여식 기간 졸업생들에게 학위복을 대여하고 있으며,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도 스타센터 포토존에서 캠퍼스의 추억을 담아가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기자

##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기염’



전북대 간호대학

전북대학교 간호대학(학장 김현옥)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된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생 86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이에 따르면 간호대학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국내 최고의 성과를 올린 데에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높이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과 동문들의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의지가 하나가 돼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의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선정, 통합 간호시뮬레이션센터(Comprehensive Nursing Simulation Center)를 확충해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과 실기교육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들과 의료기관, 대한간호협회 지회 등과 적극 공유하며 국가 거점국립대학교로서의 소임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 간호대학은 1942년 간호교육을 시작한 이후 현재 500여 명에 이르는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지상 7층의 단독건물에서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교육시설, 성과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간호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아침 거르는 도내 중학생에 간편식 제공... 내달 3월부터

### 전북자치도교육청,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 15개 중학교 학생 1300여명 대상... 내년 2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도내 1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아침 결식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라도 아침을 해결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7억2,000여만 원을 투입해 희망한 15개 중학교 학생 1,300여 명에게 간편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1인 1식 3,000원이며, 지원 일수는 최대 190일이다.

간편식은 각 학교가 신청 학생 수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위탁업체에 맡겨 공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제공된다. 제공 주기는 매일 제공, 주 3회 제공 등 학교가 결정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아침 간편식 제공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아침결식 개선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아침 결식 학생들에게 간편식이 제공되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모든 학교에 건강한 아침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행복한 교육급식으로 학생 건강 챙긴다

### 전북자치도교육청, 영양교사 대상 학교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내 각급 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건강맞춤형 교육급식 △신뢰받는 안전급식 △소통·협력하는 어울림급식 실현에 중점을 뒀다. 특히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식생활지도도를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급식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 위생·안전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 지도 강화 △학교급식 행정지원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모든 학교에서 는 급식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또 급식계시관 운영 및 연 1회 이상 급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를 위해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시설 및 지하층에 설치된 조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5개년 주기계획(2023~2027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선한다. 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음으로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식의 기능 강화로 안전하고 품질 높은 급식을 제공한다.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방사능, GMO, 후쿠시마 원전오염 식재료, 항생제, 합성첨가물 등 유해물질 없는 식재료 사용을 준수한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식사 선택 능력 배양을 위해 학교급식 영양표시제를 실시하고,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영양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교 생애·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육급식 운영,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질 높은 학교급식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6곳... 내달 4일까지 예비창업자부터 업력 3년 미만 초기창업기업 최종 선정시 평균 4500만원 사업화 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에 오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는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16개사의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포츠 분야 지원 규모의 확대도 지난해보다 2개사를 더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스포츠 산업 분야의 우

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부터 업력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이다. 기존 스포츠산업과 관련 없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이더라도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하다.

전북대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 평균 4,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단계별 창업 교육 및 기업교류 등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rtbiz.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및 스포츠 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정민 창업지원단장은 “지난해 창업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성공 창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우석대 간호학과**

우석대학교 간호학과는 4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에 100%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120명은 지난달 19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에 전원 합격했다.

이번 시험은 전체 2만4,377명의 응시자 중 2만3,567명이 합격해 96.7%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편 1997년 설립된 우석대학교 간호학과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전문 간호인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